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출 9:16)

하나님께서 이집트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 완고한 바로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온 세상에 알리고, 그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시려 그를 세우셨던 것과 같이, 이 땅에도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이름이 알려지고 전파되기 위해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을 세우시고, 악한 권력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되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고 구원 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일상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함께 힘써 이땅을 위해 기쁘게 섬겨주시는 사랑하는 동역자님!

이 곳은 6월부터 9월까지 우기입니다. 특히 밤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집니다. 처음 경험하는 계속되는 높은 습도와 무더위 속에 지치고 힘겹지만 날마다 주님 주시는 신선한 영의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곳의 낮설고 힘겨운 환경과 막막한 현실 속에 정착을 위한 생존의 몸부림을 뒤로하고 이제 일상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함께 기도해 주셨던 치료 센터는 “라파(Rapha, 치료의 여호와)” 이름으로 모든 허가 과정을 마치고 8월말에 개원하였습니다.

김선교사는 4년제 현지 대학에 한국어과 교수로 임용되어 9월초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L국 청년들을 잘 가르치고 양성하여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동안의 사역 이야기

라파한방치료센터 하나님의 은혜와 동역자분들의 기도와 물질 후원을 통해 8월 중순 라파 한방치료센터가 정식 허가를 통해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8월 20일에는 L국 한인연합교회 김기주목사님의 인도와 설교 그리고 40년간 태국선교사로 헌신해 오신 후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후배 선교사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고 계신 황윤수선교사님의 축복 기도와 몇몇 사역자분들과 함께 은혜롭게 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 치료센터가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과 육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시작이 될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라파한방 치료센터는 현지법에 의해 외국인 의사가 클리닉을 개원할 수 없어 마사지 민간요법치료센터 개념으로 허가받았습니다. 현재는 물



심양면으로 함께 해 주신 분들의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장 자립은 어렵겠지만 향후 자립 운영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혼자이지만, 치료 센터가 자립되고 운영 수익이 발생되면 직원도 채용하고 치료 봉사도 더 활발하게 하면서 현지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전달할 계획을 합니다.

치료사역 라파한방치료센터는 현재 라오스에는 유일하게 한국인 한의사가 치료하는 한방센터가 되었습니다. 월,화,목,금에는 치료센터에서 소정의 비용으로, 선교사들, 성도



들, 현지인들 그리고 교민들을 대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토,주일에는 현지교회 또는 시골을 방문해 무료 치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에는



언어는 아직 이해를 못하지만 월 2회 현지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 드린 후 치료실이 없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병원에 가지 못하는 현지성도들을 치료해 드리고 아픈이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과 감사를 누립니다. 저는 치료를 하는 가운데 몸은 힘들지만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에 더욱 더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협력사역 현지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 목사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교회 행사, 세미나 등에서 의료봉사도 하고 해외에서 도네이션된 물건들을 현지인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는 기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중순에는 수도 비엔티안 인근 몽족교회에서 가진 여름 수련회 4일 기간 동안 치료 사역을 통해 하루 평균 40여명의 몽족 성도들을 치료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체험하며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가졌습니다. 8월말에는 태국 치앙마이 현지 교회 초청으로 의료 사역을 위해 치앙마이에 다녀왔습니다. 태국 교회 성도들과 이웃들 그리고 한인 선교사님들을 방문하여 치료하면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김선교사 치앙마이 한인 여성 선교사 세미나에 초청되어 ‘여성 선교사 리더십 개발’에 관한 강의를 통해 여성 선교사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될 것을 격려했습니다.



오늘도 L국을 위해 기도로 물질로 함께해 주시는 귀한 동역자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주심에 저희는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신 복음전도를 위한 소명을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제목과 감사

1. 정착의 과정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희 부부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 그리고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2. 라파 한방 치료 센터를 통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L국 사역자들과 현지인 그리고 이곳 교민들에게까지 치유와 회복으로 경험되어지고 치료센터가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3. 치료사역과 언어공부 전념하는 황선교사가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치유 능력에 의지하며 이 나라를 겸손히 잘 섬길 수 있도록
4. 김선교사가 오전에는 한국어 강의하고, 오후에는 현지어를 배우고, 풀러 Ph.D 과정중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5. 대학원에서 새롭게 학업을 시작한 큰 아들 재훈이가 이탈리아에서 1년간 학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6. 홀로 미국에 남게 된 작은 아들 지한이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항상 느끼며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내년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의 삶에 주인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도록
7. 정착한지 6개월만에 허락하신 귀한 일상을 통해 한달에 한번씩 국경을 넘어 비자를 받아야 했던 시간을 뒤로 하고 저희가 1년짜리 장기비자를 받고 안정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과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1,미국에서 후원: 송금시 **Memo(또는 Add a Message)란에 "Hwang Gyuin" 꼭 기입해 주세요.**

① 은행구좌정보 : Routing #: 122043602 / Account #: 07409881

② Venmo: ID: GP-USA Inc (GI) / Email: gpfinance@gpusa.org

③ Zelle: Mobile '657-538-7096' or E-mail 'gpfinance@gpusa.org'

***Add a Message 란에 "Hwang Gyuin"을 꼭 기입해 주세요**

④ Checks: 'GP-USA',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주소로/Pay to order:GP-USA

2. 한국에서 후원하시는 방법

계좌번호 : 111-890163-81007 **예금주(황규인) / 은행명:KEB하나은행**

*** 재정후원문의 : Email : gpfinance@gpusa.org / Phone : +1 (714) - 774 - 9191
(GLOBAL PARTNERS, USA / 재정 담당 : 박미라 간사)**